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이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완택¹, 임성현², 조창익³, 이종석⁴, 정득^{5*}

¹한림대학교 융합인재학부 학생, ²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학생, ³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⁴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 ⁵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객원교수

The Effects of Personal Emotion and Social Change Perception caused by COVID-19 on Disaster Response Perception after the Post-Endemic

Wan-Taek Lee¹, Seong-Hyeon Lim², Changik Jo³, Jongseok Lee⁴, Deuk Jung^{5*}

¹Student, School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Hallym University

²Student,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Studies, Hallym University

³Professor, School of Global Studies, Hallym University

⁴Professor,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Studies, Hallym University

⁵Visiting Professor,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Studies, Hally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한 팬데믹의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이 엔데믹 이후 재난 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를 사용하였고, 996명(남 508명, 여 488명)을 연구대상으로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긍정정서와 사회변화 인식 요인들은 재난대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동체의식은 재난대처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부정정서를 완화시켜 주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난 상황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안정감을 갖는 코로나19 긍정정서와 공동체의식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엔데믹 이후 재난 발생 상황에서 수행되는 정부의 선행 및 후속 조치 방안들이 국민에게 자긍심과 안정감을 주는 체계적인 재난대처 메뉴얼과 컨트롤 타워가 더 강력하게 요청되며, 국민에게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적인 행동과 판단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재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공동체의식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키워드 : 엔데믹, 코로나19 개인정서, 공동체의식, 재난대처 인식, 사회변화 인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ersonal emotions and social change perceptions of pandemic experienced by Korean people in the COVID-19 situation on the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after the endemic. For this end, we used the survey data with 996 respondents on 「Daily Changes of the People After COVID-19」conducted by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COVID-19 positive emotions and social change perception factors had a positive (+) effect on disaster response perception, while the sense of community had a moderating effect that alleviated COVID-19 negative emotions which had a negative (-) effect.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disaster response perception after the endemic were COVID-19 positive emotions and community sense that had pride and stability in Korean society during disaster situation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systematic disaster response manuals and control towers that give the public pride and stability are more strongly requested for the government's prior and follow-up measures performed in the post-endemic disaster situation, and that the people are asked to have the community sense to overcome disasters together rather than to respond with personal actions and judgments.

Key Words : Endemic, Personal Emotional Response, Community Sense, Disaster Response Perception, Social Change Perception

*Corresponding Author : Deuk Jung(deuk4201@hallym.ac.kr)

Received May 30, 2022

Revised July 13, 2022

Accepted August 20, 2022

Published August 28, 2022

1. 서론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며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지 2년 1개월만이다. 엔데믹은 질병이 종식되지 않고 풍토병과 같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며, 질병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는 팬데믹 종식 후에 우리 사회가 일상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이다[2].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완전히 해제되었고, 운영 시간, 사적 모임, 행사 및 집회, 기타의 제한 조치도 모두 해제되었다. 또한, 정부는 실내 취식 재개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도 후속하여 발표하였으며[3],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춤에 따라 확진자 격리도 해제되고, 모든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전과 같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4].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2022)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나 집단 감염의 예방, 검사, 격리, 개인 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비약물적 정책(Non Pharmaceutical Intervention)이 수행될 때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강도 높은 공동체 의식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합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5]. 또한, 미국의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완만한 양상으로 접어들었고, 최근 오미크론 관련하여 WHO가 제시한 사망률 3.4%보다 훨씬 적은 0.65%의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도하였다[6,7]. 즉,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려는 공동체 의식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한 신뢰가 전면 봉쇄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적 충격도 훨씬 작은 상황에서 엔데믹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8].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긍정적 결과로 엔데믹에 이르는 했지만, 코로나19는 국민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Mao 외(2020)는 감염병 이후 동반되는 심리적 문제를 연구하였는데 불안, 두려움, 좌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같은 정신적 후유증이 1년 후까지도 지속

된다고 하였다[9]. 코로나19가 유입된 이후 9개월 시점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우울감이 22.1%, 불안감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3.8%였던 우울 위험군을 고려하면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10].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언론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부정정서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이 23%로 나타나며,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16%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다[11].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보이며 K-방역이라는 자긍심으로 엔데믹에 이르게 되었지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확산은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외상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엔데믹으로 인해 함께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려는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재난대처 인식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이 재난을 대처하는 수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인식을 의미한다. 이 재난대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된다면, 엔데믹 이후 재난 발생에 대한 공공보건정책과 재난대처 매뉴얼을 정립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보건의료시스템과 정책적 측면, 비대면 수업에 관한 교육적 측면, 팬데믹으로 인한 정서적 측면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엔데믹 이후 국민의 재난대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종료하고 엔데믹을 선언한 시점에서 향후 또 다른 재난에 대한 국민의 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이 재난대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재난대처 인식에 중요한 변인이 되는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 개인에게 인지된 정서와 감염병 재난에 대한 사회변화 인식을 연령대별로 분석하고,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대별로 개인 정서와 사회변화 인식, 재난대처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 2.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이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를 이용하였다[12]. 이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양식이 급진적으로 바뀌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조사의 특성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개인의 활동을 포함한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정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자료로 구성되었다.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21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였으며,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적 변화와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가치 체계에 대한 사회변화인식,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한 전망 및 방향성에 대한 인식 항목들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측정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의 결측값을 제외한 99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2.3.1 인구 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소득수준, 직업 분류를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였고, 소득수준은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의 4개 범주로, 거주지역은 지방과 수도권으로 측정하였다.

2.3.2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정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정서는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변화된 감정을 측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1: 많이 감소, 2: 조금 감소, 3: 변화 없음, 4: 조금 증가, 5: 많이 증가)로 설계된 5개 항목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긍정정서는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안도감'을 측정할 단일 항목을 활용하였고, 부정정서는 '불안 또는 두려움', '무기력감 또는 좌절감', '걱정 또는 스트레스', '외로움 또는 우울함'을 측정할 4개 변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부정정서' 변수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804로 높은 수준이었다.

2.3.3 사회변화 인식

사회변화 인식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Likert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약간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로 평가하였다. '크고 강한 정부', '사회안전망 확대',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 활성화', '자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보호', '공동체 의식'의 5개 변수로 사회변화 인식을 측정하였다.

2.3.4 재난대처 인식

재난대처 인식 변수는 '재난 상황 시 나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상황 시 한국은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의 4개의 변수를 Likert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약간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로 평가하였다. 이 변수들의 평균을 '재난대처 인식'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817로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2.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으로 관찰빈도와 상대빈도(%)를 요약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재난대처 인식의 평

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활용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직업, 소득수준에 따른 재난대처 인식의 평균 차이와 연령대별로 코로나19 개인정서, 사회변화 인식, 재난대처 인식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평균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위첨자를 다르게 표시하였다.

셋째, 연령대별로 재난대처 인식과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서, 사회인식 변화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난대처 인식'으로 설정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나이',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을 설계하였고, 개인 정서에 대한 공동체意識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두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함께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난대처 인식

Table 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고 각 특성에 따른 재난대처 인식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성 508명(51.0%), 여성 488명(49.0%)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192명(19.3%), 30대가 185명(18.6%), 40대가 220명(22.1%), 50대가 234명(23.5%), 60대가 165명(16.6%)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서비스가 97명(9.7%), 사무종사자 353명(35.4%), 기능/현장종사자 82명(8.2%), 관리/전문직이 124명(12.4%), 주부가 162명(16.3%), 학생이 51명(5.1%), 기타가 127명(12.8%)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월 300만 원 미만이 237명(23.8%), 300-500만 원 미만이 335명(33.6%), 500-700만 원 미만이 229명(23.0%), 700만 원 이상이 195명(19.6%)이었다. 거주지역은 도심이 543명(54.5%), 지방이 453명(45.5%)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의 평균을 독립표본 t 검정과 ANOVA로 분석한 결과, 성별과 소득수준, 거주지역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과 직업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재난대처 인식의 평균은 성별 가운데 남성이 3.64, 여성이 3.65였고, 거주지역 가운데 도심 거주자가 3.68, 지방 거주자가 3.59로 나타났으며,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집단과 직업, 소득수준에 대한 재난대처 인식의 평균 차이를 ANOVA의 사후검정 방법인 Scheff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에서 재난대처 인식 평균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3.9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62)와 60대(3.70)였다. 30대(3.51)와 20대(3.3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에 따른 재난대처 인식 평균은 주부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기능/현장종사자가 3.67, 사무종사자가 3.65, 관리/전문직이 3.63이었다. 그리고 학생의 재난대처 인식이 3.3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재난대처 인식의 평균은 월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3.55, 300-5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3.65,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3.71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nd Average of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N=996)

Variables	n(%)	Mean±S.D	p-value (t / F)	
Gender	Male	508(51.0)	3.64±3.64	0.790 (-0.267)
	Female	488(49.0)	3.65±3.65	
Age	20 - 29	192(19.3)	3.38 ^a ±0.46	<0.001 (18.667)
	30 - 39	185(18.6)	3.51 ^{a,b} ±0.55	
	40 - 49	220(22.1)	3.62 ^b ±0.45	
	50 - 59	234(23.5)	3.93 ^c ±0.45	
	60 - 69	165(16.6)	3.70 ^b ±0.59	
Job	Self-employed /Service	97(9.7)	3.53 ^{a,b} ±0.65	0.025 (2.421)
	Office	353(35.4)	3.65 ^{a,b} ±0.68	
	technical/Factory	82(8.2)	3.67 ^{a,b} ±0.65	
	administrative /specialized	124(12.4)	3.63 ^{a,b} ±0.82	
	Housekeeping	162(16.3)	3.77 ^b ±0.76	
	Student	51(5.1)	3.39 ^a ±0.73	
	Others	127(12.8)	3.64 ^{a,b} ±0.75	
Income Level	< 300	237(23.8)	3.55 ^a ±0.70	0.094 (2.135)
	≥ 300, < 500	335(33.6)	3.65 ^a ±0.70	
	≥ 500, < 700	229(23.0)	3.66 ^a ±0.73	
	≥ 700	195(19.6)	3.71 ^a ±0.77	
Residence Area	Urban	543(54.5)	3.68±0.73	0.052 (1.943)
	Rural	453(45.5)	3.59±0.72	

The p-values were calculated through independent sample t test or one-way ANOVA, and significant when it was less than 0.05.

For the post-hoc comparison, the Scheffe method was used. If the superscript of the mean was the same,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a)(b)(c)

3.2 코로나19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에 대한 연령 집단별 평균 차이

Table 2는 연령집단별 코로나19의 개인 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를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Table 2.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Age Group (N=996)

Variables	Age Groups					p-value (F)
	20s	30s	40s	50s	60s	
COVID19 Positive Emotion	2.97 ^{ab} ±0.99	3.07 ^{ab} ±1.04	3.16 ^{ab} ±1.04	3.28 ^b ±1.10	2.89 ^a ±1.15	0.002 (4.362)
COVID19 Negative Emotion	3.7 ^a ±0.58	3.7 ^a ±0.60	3.73 ^a ±0.59	3.72 ^a ±0.56	3.68 ^a ±0.64	0.953 (0.171)
Big-Strong Government	3.43 ^a ±1.07	3.55 ^a ±1.01	3.64 ^a ±1.07	3.61 ^a ±1.15	3.4 ^a ±1.26	0.133 (1.768)
Social Safety Net	3.66 ^a ±0.94	3.75 ^{ab} ±0.96	3.99 ^b ±0.97	3.98 ^b ±0.95	3.72 ^{ab} ±1.04	<0.001 (5.234)
Distance-Study/Work-Home	3.8 ^a ±0.88	3.75 ^a ±0.91	3.73 ^a ±0.86	3.81 ^a ±0.82	3.67 ^a ±0.86	0.506 (0.831)
Protection of Nationals/Foreigners	3.18 ^a ±1.03	3.16 ^a ±1.10	3.41 ^{ab} ±0.92	3.53 ^b ±0.92	3.41 ^{ab} ±1.04	<0.001 (5.137)
Community Sense	3.92 ^a ±0.86	4.06 ^{ab} ±0.86	4.18 ^b ±0.79	4.28 ^b ±0.78	4.26 ^b ±0.79	<0.001 (6.735)

The p-values were calculated through one-way ANOVA, and significant when it were less than 0.05. For the post-hoc comparison, the Scheffe method was used. If the superscript of the mean was the same,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a<b)

분석 결과, 코로나19 긍정정서, 사회안전망 확대, 자국민/외국인 보호, 공동체의식은 연령집단별로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코로나19 긍정정서는 50대가 3.2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가 3.16, 30대가 3.07 순이었으며 20대(2.97)와 60대(2.89)는 3점 미만으로 낮았다. 사회안전망 확대 인식도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40대가 3.99, 50대가 3.98로 높았다. 다음으로 30대(3.75)와 60대(3.72)이고 20대는 3.66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자국민/외국인 보호는 50대가 3.53으로 높았고, 60대(3.41), 40대(3.41) 순이었으며, 20대가 3.18, 30대가 3.16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공동체의식은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는데, 20대만 3.92였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4점 이상의 평균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부정정서, 크고 강한 정부에 대한 인식, 원격교육/재택근무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연령집단별로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정서는 코로나19 긍정정서의 연령

별 평균에 비해 3.7점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변화 인식 가운데 크고 강한 정부는 상대적으로 40대가 3.64로 높았고, 60대가 3.40로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원격교육/재택근무 활성화는 연령집단별로 약 3.7점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차이가 유의한 변수들인 코로나19 긍정정서, 사회안전망 확대, 자국민/외국인 보호, 공동체의식은 연령이 20대에서 50대로 높아질수록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0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동일하게 보였다. 반면,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인 코로나19 부정정서, 크고 강한 정부, 원격교육/재택근무 활성화는 전 연령대의 평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3.3 코로나19 개인정서 및 사회변화 인식과 재난대처 인식의 연령집단별 상관관계

Table 3은 연령집단별 코로나19의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에 대한 재난대처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y Age Group (N=996)

Variables	Disaster Response Perception by Age Groups				
	20s	30s	40s	50s	60s
COVID-19 Positive	0.341***	0.468***	0.424***	0.444***	0.434***
COVID-19 Negative	-0.134	0.048	0.069	-0.065	-0.002
Big-Strong Government	0.211**	0.340***	0.304***	0.455***	0.422***
Social Safety Net	0.234**	0.378***	0.347***	0.449***	0.465***
Distance Learning/Work at Home	0.211**	0.253**	0.322***	0.337***	0.278***
Protection of Nationals/Foreigners	0.248**	0.338***	0.262***	0.309***	0.264**
Community Sense	0.148*	0.424***	0.499***	0.426***	0.336***

The correlation analysis utiliz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r). * p<0.05, ** p<0.01, , *** p<0.001

분석 결과, 코로나19 부정정서와 재난대처 인식의 상관관계만 연령집단별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변수들은 모두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재난대처 인식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긍정정서와의 상관관계는 30대가 +0.468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크고 강한 정부 인식은 50대가 +0.455, 사회안전망 확대 인식은 60대가 +0.465, 원격교육/재택근무 활성화는 50대가 +0.337, 자국민/외국인 보호 인식은 30대가 +0.338, 공동체의식은 40대가 +0.499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4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이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4에서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통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이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성별은 여성을 '0', 남성을 '1'로, 거주지역은 지방을 '0', 도시를 '1'로 더미처리하였다. 연령과 직업, 소득수준은 통제변수로 분석하기 위해 더미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모델 1이 37.9%였으며, 모델 2는 38.3%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재난대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소득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영향을 통제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정서는 비표준화 계수가 +0.199로 정(+)의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19 부정정서는 비표준화 계수가 -0.059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변화 인식 변수인 크고 강한 정부, 사회안전망 확대, 원격교육/재택근무 활성화, 국민/외국인 보호, 공동체의식 모두 비표준화 계수가 정(+)의 영향을 유의하게 나타내었으며,

각 요인에 동의할수록 재난대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가운데 종속변수인 재난대처 인식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표준화 계수가 0.188인 공동체의식이었고, 다음으로 크고 강한 정부(0.137), 사회안전망 확대(0.121)였다.

모델 2는 모델 1에서 사회변화 인식 변수 가운데 개인정서인 공동체의식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델 1의 독립변수들과 조절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코로나19 긍정정서와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결과를 생략하였다. 모델 1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에 상호작용항으로 코로나19 부정정서와 공동체의식을 곱한 변수를 추가로 설계하고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38.3%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코로나19 부정정서와 공동체의식, 그리고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코로나19 긍정정서는 재난대처 인식에 독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코로나19 부정정서는 공동체의식 변수의 영향으로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조절되는 효과가 존재하였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N=996)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B	p-value	VIF	β	B	p-value	VIF
	Constant	0.900		<0.001		-0.362		0.493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0.042	0.029	0.268	1.097	0.041	0.028	0.281	1.097
	Age	0.010	0.173	<0.001	1.049	0.010	0.171	<0.001	1.050
	Job	0.010	0.026	0.320	1.081	0.009	0.023	0.368	1.083
	Income Level	0.044	0.065	0.012	1.057	0.044	0.064	0.013	1.057
	Area of Residence	-0.028	-0.020	0.435	1.012	-0.026	-0.018	0.476	1.013
COVID-19 Emotions	Positive Emotion	0.199	0.295	<0.001	1.171	0.198	0.293	<0.001	1.172
	Negative Emotion	-0.059	-0.048	0.066	1.101	0.294	0.240	0.039	1.773
Social Change Perceptions	Big-Strong Government	0.089	0.137	<0.001	1.271	0.089	0.137	<0.001	1.271
	Social Safety Net	0.089	0.121	<0.001	1.508	0.089	0.121	<0.001	1.508
	Distance Learning/Work at Home	0.062	0.074	0.009	1.260	0.060	0.072	0.011	1.261
	Protection of Nationals/Foreigners	0.059	0.083	0.002	1.193	0.061	0.085	0.002	1.194
	Community Sense	0.164	0.188	<0.001	1.419	0.477	0.547	<0.001	1.426
Interaction Variables	COVID-19 Negative Emotion × Community Sense	-	-	-	-	-0.086	-0.499	0.011	1.879
Adjusted R ²		37.9%				38.3% (ΔF : 6.487, p-value: 0.011)			

Gender: Female(0), Male(1); Residence Area: Rural(0), Urban(1)

Job: Self-Employed/Service industry(0), Office(1), Technical/Factory(2), Administrative/Specialized(3), Housekeeper(4), Student(5), Etc(6)

Income Level: 300<(0), 500<(1), 700<(2), 700≥(3)

β :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Standardized Coefficient;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이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별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 재난대처 인식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긍정정서, 사회안전망 확대, 자국민/외국인 보호, 공동체의식, 재난대처 인식에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긍정정서인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안도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이 높았으며, 60대는 20대보다 낮았다. 코로나19 부정정서는 '불안 또는 두려움', '무기력감 또는 좌절감', '걱정 또는 스트레스', '외로움 또는 우울함'의 평균을 연령대별로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평균이 코로나19 긍정정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방역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코로나 진단검사와 감염 이후 시행되는 보건의료 모듈로 인해 감염병 방역을 성공적으로 대처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자긍심이나 안정감을 갖기도 했지만, 반대로 장기간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불안, 무기력,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도 함께 인지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60대의 긍정정서가 가장 낮은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치명률이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결과 위험인식 역시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데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1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의 인식은 사회안전망 확대, 자국민/외국인 보호, 공동체의식에서 연령대별로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크고 강한 정부, 원격교육/재택근무 활성화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 평균 차이가 있었던 사회변화 인식 변수들은 공통적으로 20대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평균이 높아지다가 60대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장수지(2021)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적 위기나 사회변화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14].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민주화 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참여했던 세대로, 개인의 욕구보다는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어있었던 시대

를 보냈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특성이 있다. 반면, 20-30대와 같은 낮은 연령대의 경우,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매체의 활용과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 생활화로 인해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개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세대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대', '자국민/외국인 보호', '공동체의식' 같은 사회변화 인식에서 연령대별로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투영된 결과라고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변화 인식에서 연령이 50대로 증가할수록 평균이 높아지다가 60대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60대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군일 뿐만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90% 이상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팬데믹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동체의식은 이호준 외(2014)의 연구에서 20-40대 연령층보다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5].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다른 사회변화 인식 변수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20대만 평균이 3.917이었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은 공동체의식은 재난 복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난대처를 수행함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높은 공동체의식이 K-방역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이어져 전 연령대에서 방역지침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6].

둘째,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의 모든 변인이 재난대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긍정정서인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안도감'은 재난대처 인식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김상돈(2021)의 연구에서 K-방역정책 만족도가 정부의 대응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고,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면[17],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안도감이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정(+)의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재난대처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음 요인은 공동체의식이었고, 크고 강한 정부, 사회안전망 확대, 자국민/외국인 보호, 원격학습/재택근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난대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화 인식의 결과는 팬데믹 대처 방안과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특히 공동체의식은 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윤택히 할 수 있는 영향 요인이 된다[18].

또한, 모델 2에서는 코로나19 부정정서가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체의식이 조절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했다. 즉, 코로나19 부정정서는 재난대처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공동체의식이 코로나19 부정정서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재난대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도 방역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한다는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완한 것이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엔데믹 이후 다시 도래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안정감을 갖게 하는 정부의 재난대처 정책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의 방역 실패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대응과 시민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엔데믹을 선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기상황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동체라는 국민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고, 재난 상황을 대처할 정부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이 넘는 장기간의 방역수칙이 끝나가는 엔데믹의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재난대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연령대별 코로나19 개인정서의 차이와 사회변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엔데믹 이후 재난대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긍심과 안도감,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엔데믹 선언을 한 현 시점에서 조사된 자료가 아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재난대처 인식을 측정된 자료인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2020년 9월)를 활용한 제한점이

있다[19]. 따라서 엔데믹 시점에서의 개인정서와 사회변화 인식을 측정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 정책과 방역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Y. Kim. (2022-04-15). COVID-19, pandemic... Manage like a 'flu' in effect.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5051451530>
- [2] J. A. Lee. (2022, April 10).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Epidemic" and "Pandemic", "Endemic"?. Retrieved from: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3554>
- [3] MOHW. (2022).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about two years and one month, it is more important to comply with daily quarantine rules for preventing infection such as washing hands, ventilation, and disinfection.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1078#>
- [4] MOHW. (2022). Adjustment of the obligation to wear outdoor masks from May 2nd (Monday).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71325&contSeq=371325&board_id=&gubun=ALL
- [5] J. Kim. (2022). Covid-19 Pandemic Policy in Time: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8(1), 5-30. DOI : 10.19067/jgs.2022.28.1.5
- [6] U. Friedman. (2022). The Seven Habits of COVID-Resilient Nations.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2/02/south-korea-resilient-covid-deaths/622085/>
- [7] S. M. Kim, S. Y. Park, M. W. Lee & C. W. Kang. (2021).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ment Policies in Pandemic Circumstances and Crises: Based on COVID-19, SARS, M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16(1), 123-141. DOI : 10.13066/kspm.2021.16.1.123
- [8] M. H. Seo, J. H. Park & H. Y. Song. (2021). The Relationship of Government Response, Community Response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College Students. *Health & Welfare*, 23(4), 7-23. DOI : 10.23948/kshw.2021.12.23.4.7
- [9] R. Mao et al. (2020). Manifestations and

prognosis of gastrointestinal and liver involvement in patients with COVID-1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ancet Gastroenterol Hepatol*, 5(7), 667-678. DOI : 10.1016/S2468-1253(20)30126-6

- [10] M. Y. Sim. (2020).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Medicine*, 95(6), 360-363. DOI : 10.3904/kjm.2020.95.6.360
- [11] E. H. Lee. (2020). COVID-19 generation, how is your mental health!. *Issue&Analysis*, (Report No. 414), 1-25.
- [12] Korea Press Foundation. (2021). Raw data on people's daily changes since COVID-19. <https://kpf.or.kr/front/mediaStats>
- [13] T. S. Kim & Y. H. Cho. (2021). COVID-19 Pandemic and Government Trust. *National Strategy*, 27(1), 39-68. DOI : 10.35390/sejong.27.1.202102.002
- [14] Y. L. Cho & S. Y. Kim. (2021). How Public's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Affect COVID-19 Risk Perceptions,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and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4), 106-147. DOI : 10.20879/kjics.2021.65.4.003
- [15] H. J. Lee & Y. S. Kim. (2022). Politics of COVID-19 Response: Political System,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Varieties of Policy Responses. *OUGHTOPIA*, 36(3), 69-95. DOI : 10.32355/OUGHTOPIA.2022.02.36.3.69
- [16] S. J. Chang, S. Y. Kim & E. Kobayashi. (2014). Cultural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Different Age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2), 1-27. DOI : 10.21193/kjspp.2014.28.2.001
- [17] S. D. Kim. (2021). The impact of Individualization of COVID-19 risk on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n satisfaction of K-prevention policy and government agency response. *Journal of Public Society*, 11(1), 5-40. DOI : 10.21286/jps.2021.02.11.1.5
- [18] M. C. Ko & A. R. Lee. (2019).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Trust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Role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31(3), 149-174. DOI : 10.21026/jlgs.2019.31.3.149
- [19] B. B. Park & J. S. Shin. (2021). The Effects of Voters' Relative Evaluations of Government Response to Satisfaction of Democracy, and National Pride i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Korean Party Studies Review*, 20(3), 131-166. DOI : 10.30992/KPSR.2021.09.20.3.131

이 완택(Wan-Taek Lee)

[학생회원]



· 2019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융합인재학부 의과학융합전공 학부생

· 관심분야 : 인공지능, 의료데이터, 의과학융합, 물리학
· E-Mail : dhksxor20@naver.com

임 성현(Seong-Hyeon Lim)

[학생회원]



· 2009년 3월~2017년 7월 : 북경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부
· 2022년 3월~현재 : 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AI 의료융합학과 학부생

· 관심분야 : 의학, 생화학, 의료융합, 빅데이터
· E-Mail : tjdgus4817@naver.com

조 창익(Changik Jo)

[정회원]



· 2001년 1월~2004년 6월 : 미국 Baruch College, CUNY 전임강사
· 2004년 8월~2006년 4월 : 미국 Anderson Univ. 경제학과 조교수
· 2006년 4월~현재 :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응용미시경제학, 보건의료제도, 건강행태, 정책분석/평가
· E-Mail : cjo@hallym.ac.kr

이 종석(Jongseok Lee)

[정회원]



· 2005년 9월~현재 : 한림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과학융합, 기술경영, 경영전략
· E-Mail : ljs1844@hallym.ac.kr

정 득(Deuk Jung)

[정회원]



- 2019년 2월~2022년 2월 : 한림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객원교수
- 2022년 3월~현재 : 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객원교수
- 2005년 3월~현재 : 창솔감리교회 목사

- 관심분야 : 의과학융합, 보건의료통계, 경영통계, 종교사회학
- E-Mail : deuk4201@hallym.ac.kr